

해남에 전국 친환경 농업인 1만명 모인다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8~9일 우슬체육공원에서 건강한 먹거리 인식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방향 모색

전국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가장 넓은 해남에 1만여 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모인다. 해남군은 한국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오는 8-9일 이틀간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사·도별 격년제로 개최하며, 올해는 개최 시군 공모를 거쳐 해남군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충북 괴산군에서 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하루 행사로 진행해왔지만, 해남에서 처음 1박 2일간 행사를 치르게 됐다.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대회는 '친환경농업의 힘찬 비상!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건강한 먹거리 인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한다. 참가 농업인들은 친환경 실천 결의와 화합을 다진다.

행사장에서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관이 운영되며 친환경 농업 관련 농기계 자재·기술전시 등 전시행사, 친환경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 기간 지역 특별공연과 친환경 기념행사, 친환경 노래자랑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해남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는 8-10일 열리는 2023 명랑대접축제를 관람하며 지역 문화를 탐방한다. 대화용기 사용, 분리수거 실천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도 함께 한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합심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493ha 규모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보하면서 전남 1위를 차지했다.

저탄소 농산물을 포함해 모두 1200여 가구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로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4474ha로, 전국 시·군·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한우 농장을 배출하며 '저탄소 농업 중심지' 조성 계획에 성큼 다가섰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건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농업 관련 기관,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인 해남군에서 오는 8-9일 열리는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에 1만여 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모인다. 유기농 녹차를 재배하는 해남군 북이면 흥촌리 설아다원.

해남군 "육아 품앗이로 부담 덜어요"

공동육아나눔터 2곳 성황리에 운영 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체험활동도

해남군이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해남군 관내에는 2개소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소한 1호 나눔터는 해남읍 해리 코아루아파트 103동 1층에 개설해 5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이용한다.

2호 나눔터는 해남읍 구교리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 3층에 올 4월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자녀 돌봄과 함께 품앗이 활동으로 학교 등하교시 품앗이 케어, 가족과 함께 콩나물 키우기 등을 각종 체험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상시 프로그램으로 초록지구 만들기, 요리교실, 어린이날 축하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군에서는 앞으로도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 해남읍 구교리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 3층에 개관한 2호 나눔터에서 직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 시민운동 '희망찬 목포 만들기' 실천추진단이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준공을 앞두고 평화 활동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전국체전 열리는 목포 깨끗하게 해야죠

목포 범시민운동 500여명, 경기장 주변 정화활동 나서

목포시 민선 8기 범시민운동인 '희망찬 목포 만들기' 참가자들이 전국체전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정화 활동을 벌였다.

희망찬 목포 만들기 실천추진단 500여 명은 최근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오는 10-11월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민선 8기 범시민운동인 희망찬 목포 만들기는 '마을가꿈' 등 4대 실천과제를 내걸고 있다. 목포시와 실천추진단은 오는 6일 열린 목포중

합경기장 준공식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 쓰레기와 잡초를 치웠다.

목포시는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변과 관광지에서 지속해서 정화 활동을 할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양대체전을 계기로 전국에서 수많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 우리 목포시가 2000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작은 움직임이 희망찬 목포,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어가는 큰 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거리 예술 축제 '무안 아트 페스타' 8~9일 개최

교촌리 불무공원 일원서

무안군이 오는 8-9일 이틀간 무안을 교촌리 불무공원 일원에서 거리 예술 축제인 '2023 무안 아트 페스타'를 연다.

2023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불무, 예술에 물들

다'이다.

무대에는 국내의 17개 단체가 마당극, 마임, 버스킹, 서커스, 인형극 등을 다채롭게 올린다.

공중 난간 위에서 화려한 기예를 펼치는 서커스 '덤덤'과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놀음', 혼합 인형극 '홍동지와 이시미', 극단 갯물의 마당극 '폼바 폼바' 등이 볼거리다.

오는 8일 오후 5시 30분 풍물패 길놀이를 펼치며 축제를 시작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50개 점포가 운영된다. 특산품 장터와 예술인 베품시장, 수공예품 시장 등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2023 무안 아트 페스타 기간 불무공원을 방문해 이색적인 공연을 많은 군민이 관람하고 가족과 함께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수부 장관 신안 앞바다서 방사능 시료 채취 4일 오전 신안군 압해읍 새우양식장을 찾은 조승환(맨 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우량(오른쪽 세번째) 신안군수와 함께 방사능 시료 채취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암경찰, 이상동기범죄 예방 순찰 강화

대불주거단지 일대서...삼호중·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80여명 참여

영암경찰이 최근 삼호읍 양양리 대불주거단지에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합동 순찰에는 영암군, 영암군 자원봉사·재능기부단, 삼호중공업, 외국인 자율방범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불주거단지 유흥가·상가 일대에서 이상동기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증·무면허·무등록' 등 3무(無) 금지 등을 홍보했다.

영암경찰은 이날 밤 시간대 순찰을 하고 환경 정화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CPTED) 활동을 했다.

김중득 영암경찰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어 쓰레기 투기와 작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큰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고 나아가 치안공동체로서의 주인의식"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과 지역 17개 기업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일자리 협력망 구축 간담회 개최

영광군과 지역 기업들이 최근 '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군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17개 기업과 관계 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전남 고용노동연구원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구인·구직 불균형 해결 방안, 일자리 협력망 구축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유영직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구인·구직 하는 취업 준비생과 지역 기업들을 연계하고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7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업지원·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제안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군내버스 증차,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도 요구했다.